

두 손을 모으고

대구에서 살고 있는 주부 도청향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수출 장려 및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 청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원자력가족 여러분께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20만 명 이상 참여해서 동의 구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한다는데 현재 동의자 12,103명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양질의 전기를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국민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지요.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원자력 가족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원자력 분야에 몸담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응원하고, 2017년 노벨상을 수상한 환경운동가가 응원하고,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세계가 선호하는데 30여 년 피눈물 흘리고, 배고픔 서러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원자력 기술을 동의 한번 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내 가족부터 먼저 해보세요. 부모님은 이메일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명만 책임지세요. 그 두 명에게 간곡하게 당부, 동의 참여하게 한 후 꼭 두 명만 소개하라고 전하세요. 동의했는지 두 명에게 전달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자의 자세는 안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자가 20만 명 아니 100만 명이 넘어 간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래 전 원자력연구소에 들렀을 때 반핵을 주장하는 환경 단체들이 원전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일 때 머리카락이 하얀 원로 과학자 한 분이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영원히, 영원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당신들은 넥타이를 매고 안전, 안전, 말하지만 나는 작업복 입고 이 안에 있는 3,000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도 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목숨이 하나뿐인,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게다가 위험으로 따지면 원전이 아니라 핵무기가 더하다. 북한 핵실험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원전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틈만 나면 연구원 앞에서 시위하는 환경단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허기진 배를 냉수로 달래며 오로지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원자력 1세대 과학자분들에게 따듯한 위로는커녕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꾼들.

그 틈바구니에서도 원자력인 여러분들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섰다면 원자력분야 노벨상 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세계무대에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탈원전이 웬 말입니까! 기막힌 현실을 통탄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했지만 새로 건설하고자 했던 5기의 중단으로 일자리 잃은 628만 명의 사람들, 200만 개의 부품업체 종사자들, 동해안 지역의 모든 주민들, 원자력 가족

여러분!

탈원전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원자력 분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론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전달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꼭 해 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지켜보면서 가슴 졸이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에너지 신문에 게재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장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왜 분노보다 서글픈 생각이 앞설까?”

장인순 박사님의 심경이 어떠할까 생각하다 저 또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호소문 10,000부를 인쇄해서 나누고, 돌리고, 단체 찾아다니기를 20여 일, 2017년 10월 11일 전 세계 석학 20여 분들이 한국의 원자력배심원들에게 보내온 “양심의 편지” “탈원전 선동에 속지 마시라.”는 글을 읽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세계가 응원하는구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대한민국 원자력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기술이며, 선진국에서 대한민국 원자력기술을 가장 선호한다는 편지글을 읽고 이제는 탈원전 안 하겠구나 라고 안심했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원자력인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원자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소중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두 명 부탁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흔쾌히 도와줄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밤
대구에서 도청향 드림